

휘발유값 이번주 1500원대로 뚝뚝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 폭 15→7% l 당 65원 올라
삼겹살 한 달 새 17%·소주 8.4% 상승 서민 물가 '들쭉'

광주·전남 휘발유 가격이 이번 주 1500원(1당) 선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7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 15%에서 7%로 축소돼 휘발유가격이 1당 65원 오르기 때문이다.

또 삼겹살 가격은 한 달 새 17% 급등했고, 쌀·우유·치킨 가격도 큰 폭으로 오르는 등 '서민 물가'가 들쭉이고 있다.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 폭 15→7%
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광주·전남지역 보통휘발유 판매가격은 1당 각각 1461원, 1458원으로 12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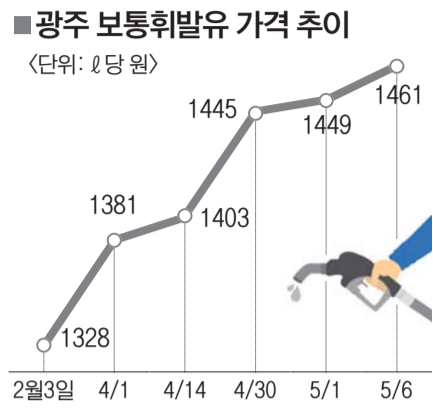
광주·전남 휘발유 가격은 지난 2월3일 최저점(광주 1328원·전남 1340원)을 찍은 뒤 날마다 오르고 있다. 지난 4월 둘째 주 휘발유 가격은 광주 1403원, 전남 1404원으로 1400원대를 돌파한 뒤, 5월 둘째 주 1460원 대 안팎으로 올라 3주 사이에 60원 가까이 가파른 인상 폭을 보였다.

특히 7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

15%에서 7%로 축소되면서 기름 값 고공세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1월6일부터 6개월간 시행하고 있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환원하기로 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오는 8월31일까지 휘발유는 1당 65원, 경유는 46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6원씩 가격이 오르게 된다. 9월1일부터 유류세는 원래대로 회복하며 휘발유 가격은 1당 123원, 경유 87원, LPG 부탄 30원 인상된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이란산 원유 공백 대체와 미 원유 재고 증가 등의 영향으로 국제유가는 떨어졌다"며 "하지만 지난 국제유가 상승분이 반영되고 유류세 한시적 인하분이 일부 환원되면서 국내 제품가격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광주의 석유 도소매 업체 대장석유 관계자는 "휘발유·경유 인상 폭은 7일 오전 결정될 예정"이라며 "기름 값이 오르기 전 미리 주유를 하려는 차량이 잇따라 들어왔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는 오는 11월30일까지 매점매석·판매 기피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삼겹살 한 달 새 17%↑ 서민물가 곱들
기름 값 인상과 함께 삼겹살·소주 등 서민 물기도 올라 지갑 사정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6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돼지고기 삼겹살 100g 가격은 2663원으로 한 주 전보다 4.8%(122원) 올랐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16.5%(377원), 1년 전보다는 19.4%(433원) 각각 뛰었다.

월별 평균 가격 기준으로는 지난해 5월 삼겹살 100g이 2071원에 팔렸으나 지난

달은 2572원으로 1년 새 24.2%(501원)나 상승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4월 돼지고기 가격 상승은 개화와 행락철 등에 따른 국내 소비 증가가 주요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돼지고기 가격은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중국에서 확산하면서 국제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 오름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일부터는 하이프진로가 소주 참이슬(360ml) 병 제품 가격을 1800원으로 8.4%(140원) 올렸고 오비맥주도 최근 주요 제품 출고가를 평균 5.3% 올렸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쌀·우유·치킨 가격은 큰 폭으로 올라 장바구니 사정이 어렵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4월 광주·전남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두 지역의 4월 쌀 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각각 광주 9.2%·전남 12.6% 오르며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마찬가지로 빵과 우유는 각각 최대 5%, 6~7%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광주의 경우 닭고기는 지난해에 비해 13.4% 오르고 치킨 가격 역시 9% 상승해 '대표 서민음식'이라는 이름을 무색하게 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삼성전자, 무풍에어컨 생산라인 성수기 대비 '바쁘다 바빠'

광주 하남산단에 있는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여름철 성수기를 대비해 지난 3월부터 에어컨 생산라인을 풀가동하고 있다. 특히, 올해 초 출시한 '무풍에어컨 갤러리'는 직바람 없이 시원한 무풍방향을 바람받까지 없앤 써클레이터 급속 냉방 기술과 혁신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소상공인 3명 중 1명 "1년 내 폐업 생각"

중기중앙회, 경영 실태 조사 됐다'는 답변이 41.2%로 절반이 넘었다.

소상공인 3명 중 1명 꼴로 최근 1년 내 사업 전환이나 폐업·휴업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극심한 경기 부진으로 인한 매출 부진이 상당수 소상공인을 한계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고된 노동에 시달리면서 이런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 희망도 품지 못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우려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내놓은 '소상공인 경영실태 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 내 사업전환이나 폐업·휴업을 고려했는가'란 질문에 전체 응답자 500명 중 33.6%가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폐업을 고려했어도 폐업을 결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폐업을 고려한 168명을 대상으로 '폐업 고려 시 가장 큰 애로사항'(중복응답)을 묻자, '매수자가 없다'는 답변이 63.1%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폐업 후 생계유지 부담'(58.9%), '권리금 회수 어려움'(41.1%) 순이다. '폐업 후 계획이 있는가'란 질문에 대해서도 36.3%는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10명 중 8명꼴로 경기 악화를 실감했다. '지난해 대비 올해 경기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는 질문에 77.8%는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매우 악화

이로 인해 대부분 소상공인의 경영 실적이 나빠졌다. 지난해 대비 올해 영업이익 추이를 묻자, 80%가 '나빠졌다'고 답했다. 원인(중복응답)으로는 '소비심리 위축'이 가장 많이 꼽혔다. '제품 및 재료비 원가 상승'은 27.8%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다. 올해 매출액이 지난해 대비 감소했다고 답한 업체도 77.4%에 달했다. 실적 감소 폭은 답변은 '20%초과-40%이하'가 42.9%로 가장 많았다.

문제는 이상황이 올해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소상공인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2분기 이후 경영상황에 대해서도 59.6%가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들에게 경영상황이 나아질 시기를 물어보니 53.4%는 '나아지지 않는다'고 가장 답했다. 그러나 21.1%는 2022년 이후에나 경영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조사는 조사기관인 한국씨앤티가 중기중앙회 의뢰를 받아 4월19일~26일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국 종사자 5인 미만 소상공인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5.59%포인트다.

백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농도 전남' 농가소득 3948만원...경기 농민보다 903만원 못벌어

평균 소득 10% 상승 5년만에 최대폭...전남·제주만 감소

지난해 농가 평균소득은 전년보다 10% 늘었지만 농도(農都) 전남은 오히려 소득이 감소했다. 상대적으로 소득격차가 벌어져 전남 지역 농민은 경기 농민보다 연소득이 903만원이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8년 농가 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농가 평균소득은 3948만원으로 전년(3966만원)에 비해 0.5% 줄었다.

반면 전국 평균소득은 전년보다 10.0% 늘어난 4207만원으로 2013년(11.3%)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쌀 값과 한우 가격 등이 오르면서 농가소득이

5년 만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경기·충남·전북·제주의 농가소득은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전남은 평균보다 260만원 적었다.

전국 평균 소득은 10% 늘어난데 반해 전남은 오히려 소득이 줄어들면서 소득격차는 더 벌어졌다. 경기 농가소득 4851만원과 비교하면 전남농민은 연간 소득이 903만원(18.6%)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4509만원)과도 561만원 차이가 났다.

지난해 농가소득은 늘었지만, 농가 자산은 오히려 줄고 부채가 많이 늘었다. 농

Table with 3 columns: 지역 (Region), 소득 (Income), 증감률 (Change Rate). Rows include 평균 (Average), 제주 (Jeju), 경기 (Gyeonggi), 전북 (Jeollabuk), 전남 (Jeollanam), 경북 (Gyeongbuk), 충북 (Chungbuk), 전남 (Jeollanam), 강원 (Gangwon), 경남 (Gyeongnam).

가 평균자산은 전년보다 2.0% 줄어든 4억 9569만원이었다. 농가 자산이 감소한 것은 2013년(-1.8%) 이후 5년만에 처음 일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는 일이다. 농가 지출은 10.4% 증가한 3383만원을 기록했다. 농가 평균 부채는 겸업용, 농업용, 가계용 모두 늘어 전년보다 689만원(26.1%) 늘어난 3327만원을 기록했다.

전남지역 농가 자산은 전국 평균치를 훨씬 밑도는 3억2652만원이었고 부채는 2433만원, 가계 지출은 3059만원이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태풍 콜레어가 전남과 제주지역에 주로 영향을 미쳐 해당 지역 농가소득은 감소했지만, 전국적으로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며 "해나 장마·폭염도 있었지만 지난해 쌀값이 좋아 평균 소득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은행 점포 5곳 중 1곳 수도권에 있다

서울 1곳·광주전남 4곳 추가

광주은행이 올해 광주, 여수, 순천, 광양, 서울 등으로 지점 점포 5곳을 새로 낸

다. 6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오는 7월 광주시 서구 광천동 kbc신사옥에 점포를 내는 등 올해 지점 5곳을 신설한다.

광주 신설 점포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맞은편 kbc 신사옥이다. 현 kbc 사옥에 있는 서동지점은 인근 건물로 이전을 추진한다.

전남지역에는 여수, 순천, 광양에 한 곳씩 추가하고, 점포 장소는 물색 중이다. 광주은행은 수도권 광곽도 강화한다. 오

는 9월에는 서울 마곡지구에 점포를 추가할 예정이다.

마곡지구 점포가 신설되면 광주은행 수도권 영업본부의 점포 수는 31곳에서 32곳으로 늘어 전체 점포(147곳)의 21.8%를 차지하게 된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QR code and text: '농부'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NAVER 공식 포스트에서 구독하세요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Includes a table with columns for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고매각가격, and 비고. Lists various properties for auction across different districts like 2019타경, 2018타경, etc.